

# 한우 자조금



특집

2009년도 한우산업 결산

한우자조금 이렇게 쓰입니다

산타 한우타고, 스키장으로 GO!!

한우컨설팅 지침서 발간

온라인 홍보 이벤트 실시

# 12

2009 • December

# 쇠고기이력제, 한우자조금으로 한우소비에 긍정적 효과 발휘

## 2009년 한우산업 결산

월간한우 윤진상 · 김명구

또 다시 한해가 저물어 가고 있다. 한우산업에 있어서 올해는 무엇보다 정부의 한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 시행과 업계의 많은 노력으로 소비자들의 한우에 대한 선호도를 높였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다사다난했던 한우산업의 올 한해를 주요현안별로 결산한다.

### 한우값 회복

한우 소비 확대, 수치로 나타나

2009년은 2008년에 이어 한우산업이 심각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한우농가들은 사료비로 고통 받기는 마찬가지였지만, 한우값은 국내 경기 위축에도 불구하고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이를 상쇄시켜 주었다.

2009년 10월 13일 한우1\*\*B등급의 가격은 평균 2만 2,133원/kg까지 치솟았으며, 8월부터 지난달까지 2만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전년동기대비 5천원이상 상승한 것이며, 소 한 마리당 2백만원 가까이 오른 셈이다. 2008년도 평균 한우가격은 kg당 1만3,499원(1B등급 이상은 1만5,251원/kg)였지만, 2009년 10월까지 평균가격은 1만5,321원(1B등급 이상은 1만6,111원/kg)을 기록, 2천원 정도 상승했다.

큰소 값 상승에 힘입어 송아지가격도 급격히 올랐다. 올 1월 평균 암송아지 산지가격은 137만원, 수송아지는

151만4천원이었다. 하지만 올해 3분기부터 지금까지 거래된 시세는 250만원 정도. 능력이 뛰어난 혈통등록우 같은 경우는 무려 350만원까지도 거래되고 있다. 특히 한우농가의 최대 대목이라고 할 수 있는 추석이 지났음에도 한우값이 내리지 않는 이례적인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이처럼 소값이 고공행진을 보인 것은 소비자변 확대와 크게 연관이 있다. 음식점 원산지표시제와 쇠고기 이력제 시행으로 상당수 음식점에서 자행됐던 둔갑판매행위가 차단되는 효과를 발휘한데다 유통 구조를 최소화한 정육점형 식당이 지역마다 타운을 형성할 정도로 인기를 끌면서 자연스럽게 한우수요가 크게 늘어난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22만4천톤이 수입됐던 쇠고기는 올해 20만톤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반면에 올해 한우도축두수는 지난해에 비해 20%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 쇠고기 시장에서 수입육을 한우가 일정부문 잠식하고 있는 것이 수치로 나타나고 있다.

한우소비가 늘어난 이유는 소비자들의 한우에 대한 충성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한우전문점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달 한 한우전문점에서 만난 회사원 최모씨는 “세 달 전 한 음식점에서 미국산 쇠고기를 먹었는데, 고기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데다가 질기고 맛이 없어 거의 남겼다. 이런 일을 겪고 나서부터는 수입쇠고기 전문점은 절대 안가고 가격은 수입육보다 비싸지만 한 번 먹더라도 제대로 된 한우고기를 먹자는 의미로 한우전문점만





을 찾는다”며 “수입육음식점보다는 한우식당에 눈이 가다보니 자연적으로 한우고기 먹는 횟수도 많아졌다”고 말했다.

다른 회사원 김모씨는 “예전에는 내가 먹은 한우가 진짜일까라는 의심이 갔던 것이 사실이다”며 “하지만 이제는 모든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쇠고기의 원산지를 속여 팔지 못하도록 장치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한우전문식당을 믿고 찾는다”며 한우전문점을 신뢰하고 있다고 했다.

문제는 지금의 호황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이냐는 것이다. 사육두수가 공식적으로 260만두에 달하는 현재 상황은 분명 위험신호로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다.

수요가 무한정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기도 어렵거니와 비싼 가격이 한우고기 소비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장에서 한우값이 크게 상승하면서 적정출하 월령보다 1~2개월 앞당겨 출하하는 사례가 빈발하는가 하면 농가들의 송아지 생산 및 입식열기가 뜨겁게 달아 오르면서 정액판매량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농가들의 조기출하와 지나친 송아지 입식을 자제하면서 생산비 절감에 매진해야 한다며 좋은 시기에 어려운 때를 미리 대비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 쇠고기 시장 잠식 실패한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영향 소비자 신뢰잃어

2009년 7월은 미국산 쇠고기가 시중에 본격적으로 유통된 지 1년이 되는 달이다. 정부의 호위 속에 시판에 들어간 미국산 쇠고기는 초기에는 가격이 싼 쇠고기를 원했던 소비자들의 많은 관심으로 인기를 얻었다. 수입·판매업자들, 그리고 판매시기에 눈치를 보던 대형마트까지 미국산 쇠고기 판매를 일제히 시작하면서 초반 쓸쓸한 판매고를 올렸다. 이는 산지 소 가격이 하락하는 등 한우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미산 쇠고기 인기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타결때부터 문제가 되었던 미쇠고기의 광우병으로 인한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판매 개시로 더욱 불거지면서 국민 불신이 가시지 않았고, 이로 인해 미산 쇠고기는 점점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기 시작했다.

미국산 쇠고기가 빠르게 국내 쇠고기 시장을 잠식할 것이라며 기대를 했던 수입업체들은 미쇠고기의 극심한 판매부진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으며, 심지어 자금난에 시달려 도산하는 업체들도 속출했다. 지금까지 부도 처리된 수입육업체는 약 20개소정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급기야 미 쇠고기의 국내 판매가 실통치 않아 해외로 혈값에 역수출되기도 했다.

미 쇠고기가 소비자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지 못하자 한우값은 오래 지나지 않아 안정세를 보이는 등 선전했다.

한편 미 쇠고기 수입재개는 원산지 표시제, 수입 쇠고기 선하증권번호를 적은 영수증 또한 거래명세서 발급 의무화, 도축장 구조조정 등 유통정책에서부터, 송아지 생산안정기준가격 인상단행, 브루셀라 살처분 보상금 인상 시행, 그리고 한우농가의 조직화를 위한 한우사업단 육성 등 생산정책까지 추진되는 등 국내 축산정책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됐다.

하지만 향후 시간이 경과되면 미쇠고기에 대한 불신과 견제심리가 점차 식어 값싼 쇠고기의 부각으로 쇠고기시장을 잠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따라서 한우가 미 쇠고기와 경쟁에서 오랫동안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한우 안전·안심시스템과 고급육 생산체계를 완벽히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쇠고기 이력제 전면 시행

순조로운 사업 진행 유통투명화 기대

모든 소와 쇠고기의 이동경로 추적이 가능한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지난 6월 22일부터 유통단계까지 전면 시행됐다. 그동안 정부와 생산자단체, 농가, 유통업체 등 각 단계별 주체들은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을 사육 및 유통단계에 적용하면서 적용 훈련과 홍보 등에 만전을 기하는 등 발 빠르게 대처한 결과, 제도가 현장에서 빠르게 정착되어 가고 있는 분위기다.

시행초기에 지적됐던 사육현장에서의 위탁기관 인력 부족 및 업무과중과 농장의 이력변동사항에 대한 신고율 저조, 귀표분실 등과 유통현장에서의 생산성 저하, 비용 증가, 영세업소 홍보 및 교육부족 등의 문제점도 어느 정도 해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얼마전 쇠고기 이력시스템의 현장점검을 취재하기 위해 방문한 경기 안성 도드람 LPC가공장에서 만난 한 관계자는 “이력제 시행

초기에는 새로운 일이라 작업시간이 약간 지연됐던 것이 사실이지만 지금은 이력제와 관련된 모든 일에 완벽히 적응해 작업시간이 원상태로 돌아왔다”고 말했다.

그는 작업하다보면 실수로 쇠고기가 섞일 수도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소 한 마리의 작업을 모두 끝낸 후 다음 소의 작업을 하기 때문에 섞일 염려가 전혀 없다”고 답했다.

경기 고양의 한 농가는 송아지가 태어나면 3일안에 축협에 신고하고 있으며, 이동 시에도 즉시 연락을 취하는 등 쇠고기 이력제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귀표관리에 관해 “사실 귀표가 떨어지거나 손상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소들의 상태를 체크하면서 만일 그럴 경우 따로 구분해두고 축협에 연락하면 담당직원이 와서 바로 다시 달아준다”고 말했다.

그는 또 “쇠고기 이력제를 통해 한우가격이 더 올라가고 있다. 내가 생산한 소가 어디에서 도축되고 유통판매되는지를 확인 할 수 있는게 매우 흥미롭다”며 “쇠고기 이력제는 한우산업 발전을 생각한 정말 잘 시행된 제도”라고 덧붙였다.

음식점들은 쇠고기 이력제를 반기는 분위기다. 경기 안양의 한 한우전문점 사장은 “이력제 시행으로 악덕판매업자들의 둔갑판매 행위가 점차적으로 사라져 한우유통시장이 투명해 질 것”이라며 “우리 같이 고기를 투명하게 파는 업소들도 걱정을 덜 수 있다는 점에서 쇠고기 이력제가 무척 반갑다”고 말했다.

정부와 한우업계는 쇠고기 이력제가 현장에서 완벽하게 정착되면 악성 소 질병 발생 시 조기에 차단방역을 하고, 국내산 쇠고기에 대한 안전성 확보 및 수입산 육류와의 차별화를 통해 국내 소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20년 역사 가진 ‘한우 등급제’ 한우 품질 고급화에 결정적 기여

올해는 우리나라에 한우 등급제도가 도입된 지 20년이 되는 해다. 사실 등급제는 시행초기 난항에 부딪혔다. 축산물 거래의 관행적인 유지를 위한 도축업계, 식육 및 판매업계의 엄청난 반대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등급이 유통가격 차별화 및 품질의 선택 기준으로 부정육의 유통 근절과 Cold-Chain System 전환 등 안

전하고 맛있는 축산물 공급의 지표가 된다는 관계자들의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빠르게 제도의 정착이 이루어졌다.

3년간의 등급판정기준 마련 등 준비기간을 걸쳐 1992년에 한우 등 소, 돼지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된 등급판정은 축산법 개정에 의한 법적기반을 갖추면서, 그 사업의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특히 등급제는 한우산업의 품질 고급화를 주도한 것만은 분명하다. 한우1등급이상 출현률이 1993년 10.6%에서 2008년 54%로 크게 향상되었다는 점이 이를 증명해준다.

한우도체 평균 경락가격의 경우 1993년 9093원(kg당)에서 2008년 1만3713원으로 1.5배 상승함으로써 고급육을 생산하면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인식이 농가들 사이에서 널리 퍼지게 됐다. 등급별 가격비 차이(평균가격 100기준, 최고값에서 최저값을 뺀 값)는 93년 11에서 08년 52.6으로 4.8배 증가했는데, 등급별 가격비가 뚜렷이 형성되고 있는 것은 한우고기의 유통시장이 등급별 거래로 완전히 정착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한우 등급판정율은 도축두수 34만5020두에 비해 판정두수 5962두로 1.7%의 판정율을 보인 92년 이후 16년간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으며, 04년에는 처음으로 100%의 판정율을 기록하는 기업을 토했다. 한우 등급판정 업무를 맡고 있는 축산물등급판정소는 올해 등급결과를 출하자에게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피드백 해줘 고급육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홈페이지와 휴대전화를 통한 실시간 도매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 농가에게 출하처의 신속결정을 도와주었다. 또 등급정보 365+라는 정보 콘텐츠를 통해 등급판정 성적을 상세히 분석해 이를 농가들에게 알려줬다.

특히 등판소는 지난 6월에 본격 시행된 쇠고기 이력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본소에 이력사업본부를 신설하고, 이력 전산지원실을 마련했으며, 전 두수 시료 채취와 도축·가공·판매업체의 교육홍보를 위해 인력도 보강했다.

한우의 품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등급제는 그 기능과 역할이 갈수록 중요 시 되고 있다. 그동안 등급제는 한우의 품질고급화를 유도하고, 유통을 개선시켜 시장에서의 차별화를 통해 국내 한우산업의 경쟁력확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만큼, 앞으로도 더

큰 활약을 기대해 본다. 한편 현재 현장에서는 개량을 통한 소의 증체가 날로 향상돼 육량기준치가 변하고 있는 만큼 이에 적합한 등급판정기준이 정립돼야 한다는 일부 농가들의 지적이 있다.

## 제2기 '한우자조금' 출범

### TV광고·PR사업 강화 한우우수성 홍보

2005년부터 시행된 한우자조금사업이 올해 제2기 한우자조금 출범과 함께 TV광고와 PR사업을 강화하면서 한우고기의 우수성을 홍보하는데 집중했다.

특히 한우자조금은 한우 소비촉진을 위한 광고 및 홍보에 대한 부문에 집중적으로 사용됐으며, 이를 통해 괄목할만한 성과를 얻었다. 한우 도축물량이 크게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한우가격이 상승했던 가장 큰 이유로 한우자조금을 통한 홍보활동이 소비층 확대 등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즉 한우의 대중화를 이루는데 한우자조금의 역할이 컸다는 것.

한우자조금 관리위원회는 TV와 라디오 등 공중과 매스컴과 잡지를 통해 한우에 대한 우수성을 소개하면서 수입쇠고기 등과 확실하게 차별화 된 쇠고기라는 인식을 소비자들에게 자연스럽게 녹아들게 했다. 축산전문지 등에는 자조금은 한우산업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인식을 농가들에게 심어주는 것과 안전한 고품질 한우고기 생산에도 광고를 농가들에게 집중적으로 홍보했다.

또한 방송 작가 및 PD 한우농장 체험행사, 야구장 한우데이, 한우사랑 실천기업 공동캠페인, 도별 한우행사를 통해 국민들과 함께하는 한우산업의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한 노력을 펼쳤다. 아울러 미래의 한우 소비층인 대학생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우홍보행사를 펼친 것은 한우산업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학교급식 및 대학축제에 한우를 지원하고 한우사랑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해 젊은이들이 한우와 더 가깝게 접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올해 추석에는 20만 한우농가와 국민과 함께 하는 한우 나눔행사를 전국적으로 가졌다. 지역대표 농가들이 직접 양로원과 고아원, 장애인 복지시설, 독거노인 등 10만명에게 한우불고기와 사골곰탕을 전달하며 행사의 뜻 깊은 의미를 되새겼다.

이밖에도 한우 맛지도 발간, 비선회부위의 소비촉진을 위한 요리개발, 수입육과 차별성 조사를 통해 소비자들이 쉽게 한우를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제는 대부분의 농가들이 한우자조금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2기 한우자조금도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한우산업이 한층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갖추는데 한우자조금의 역할을 기대해본다.

## 전국한우협회 창립 10주년 맞아

### 한우산업 자체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켜

한우농가 권익보호를 위한 단체인 전국한우협회가 창립된 지 올해로 10년이 됐다. 그동안 한우협회는 생우 수입반대운동, 한우자조금 사업추진, 각종 한우정책 시행 등을 통해 한우산업 자체를 한단계 업그레이드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올해 협회는 한우유통투명화를 위해 '올인'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6월 22일부터 쇠고기 이력제 전면시행을 앞두고 이력있는 한우 시식회와 홍보행사를 개최했으며, 한우만을 판매하는 전문식당에 협회가 인증해 주는 한우판매인증점 사업도 올해를 기점으로 안정제도에 진입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협회는 최근 유통투명화 강화를 위해 소비자와 생산자단체 감시원을 중심으로 한우유통감시단을 구성해 감시활동을 전개하고, 한우이면서도 반점 등으로 인해 육우로 판정되는 등 농가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한우판별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이밖에 신종플루의 영향으로 행사규모가 축소되기는 했지만 지난달 2일 제2회 대한민국 한우먹는날을 맞아 농협과 전국의 대형유통업체 등과 손잡고 한우 할인행사를 펼쳐 보다 부담없이 더 많은 소비자들이 한우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한우소비확대에도 역량을 집중했다.





## 서울시내를 한우가 달린다 12월~3월까지 지하철, 버스를 통한 한우광고 실시

한우자조금은 이번 달 24일(목)~3월 23일(화)까지 3개월간 지하철과 버스를 통한 옥외광고를 실시한다.

서울 및 수도권 내 버스의 외부광고와 서울수도권의 지하철 스크린도어 및 와이드칼라를 통한 역구내 광고를 한다.



## 12월 방송협찬 프로그램

### KBS2 청춘불패



▲ 유명 여성그룹의 멤버들이 한우를 키우는 장면을 시리즈로 노출, 축사청소 및 여물주기, 이표이식 등 한우양육에 대한 전반적인 작업을 소개

### SBS 스타주니어쇼 붕어빵



▲ 유명 연예인과 그의 자녀들이 나와 서로의 고민을 이야기하는 프로그램, 1등을 차지한 연예인과 자녀에게 한우세트를 증정

## 라디오 프로그램 홍보협찬을 진행하는 라디오 광고

| 프로그램명                         | 방송시간        | 코너협찬 내용                                                       | 상품                | 기간             |
|-------------------------------|-------------|---------------------------------------------------------------|-------------------|----------------|
| CBS 배미향의 저녁스케치                | 18:00~20:00 | 내 삶의 길목에서<br>- 차가운 계절에 속 든든하게 한우사골로<br>아침밥먹기 프로젝트             | 일일 한우사골<br>10만원   | 11월~12월        |
| KBS-2FM 슈퍼주니어의 Kiss the Radio | 22:00~24:00 | 매일코너 몸보신 프로젝트<br>- 수능을 앞둔 고3 수험생들을 위한<br>몸보신프로젝트              | 일일 불고기<br>10만원세트  | 9월~12월         |
| SBS-FM 스위트로우의 텐텐클럽            | 22:00~24:00 | 총각네 간식가게(월·수·금)<br>- 우리반만의 특별한 사연을 올려주면 반 전체에<br>한우불고기버거세트 지원 | 한우버거세트<br>25만원×3명 | 9월~12월         |
| KBS-2FM 서경석의 뮤직쇼              | 14:00~16:00 | 월슨아 놀자<br>- 매일 다른 주제로 가장 활발하게 참여해<br>주신분과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한우제공     | 일일 불고기<br>10만원    | 11월~<br>'10.1월 |
| KBS-2R 박준형의 네시엔               | 16:00~18:00 | 달콤쌔스한 결혼이야기<br>- 결혼과 관련된 사연을 보내 주신분께<br>한우선물세트 제공             | 매주화요일<br>20만원×4명  | 11월~<br>'10.2월 |



## 산타 한우타고, 스키장으로 Go!!

곤지암리조트서 열리는 대한민국 산타축제서  
'한우고기시식의 장' 마련



금으로 기부한다.

남호경 자조금위원장은  
“이번 축제를 통해 축제에  
참가하는 모든 이들이 한우  
와 함께하는 따뜻한 성탄절  
이 되었으면 한다. 또한 마  
련된 성금이 좋은 일에 쓰이

오는 12월 19일(토)~27일(일)까  
지 9일간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리  
조트에서 열리는 제3회 대한민국  
산타축제 행사를 한우자조금이 본  
격적으로 후원한다.

한우자조금은 23(수)~25일(금),  
3일간 부스를 설치해 불고기 및 사  
골국 등 1일 1000인분의 시식행사  
를 제공한다.

또한 OX퀴즈 행사를 진행해 한  
우세트를 증정하며 한우포토존을  
신설해 무료 즉석카메라 촬영 등  
의 이벤트를 실시한다. 한우캐릭  
터 거리홍보단은 상시 행사장에서  
홍보활동을 펼친다.

상설무대에서는 기존 판매 금액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한우세트의  
경매행사를 진행해 낙찰금액은 성

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행사기간 동안 리조트 내  
에는 산타썰매가 상주해 어린이를  
포함한 가족들이 시승하며 산타  
소원의 집, 산타 선물의 방 등 산타  
마을을 조성하여 9일간 운영하며  
12월 24일(목) 크리스마스 이브에  
는 소년소녀 가장 돕기 산타축제  
콘서트를 개최한다.

## 한우 사육·경영관리 노하우가 ‘한눈에’

37명 전문가 집필 ‘한우 컨설팅 지침서’ 발간



한우를 사육하는데 필요한 사양 및 경  
영관리에 대한 지침서인 ‘한우 컨설팅  
지침서’가 지난 17일 발간됐다.

한우자조금과 한국동물자원과학회 한  
우연구회는 지난 8월 계약을 체결하고

다하겠단다”고 말했다.

원유석 한국동물자원과학회 한우연구  
회장은 “기축년을 기념해 전국의 한우전  
문기들이 함께 참여하여 농가들의 한우  
사육 현장에서 필요한 사안들을 최대한

지침서를 개발했다. 남호경위  
원장은 “기대이상으로 좋은  
자료가 나온 것 같다. 원유석  
회장을 비롯한 한우연구회원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앞으로 이 교재가  
한우사육현장에서 널리 쓰일  
수 있도록 농가홍보에 최선을

알기 쉽게 풀어 정리한 자료”라며 “향후  
4~5년간 농가 교육현장에서 가장 널리  
두루 쓰일 수 있는 활용도 높은 교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우 컨설팅 지침서의 주요내용은 한  
우의 기원을 시작으로, 한우개량, 영양  
및 대사, 사료 및 사육, 질병관리 등 한  
우양육농가에 필요한 모든 내용을 기록  
했다.

한우 컨설팅 지침서는 37명의 전문교  
수 및 전문가가 집필했으며 총 7천부를  
인쇄해 각 도지회 및 사업단에 발송할  
계획이다.



## “한우 고급화 선도… 산업 발전 기여”

종개협, 한우능력평가대회 결과 보고…추후 격년제 개최 논의



한국종축개량협회(회장 조병대)는 지난 15일 경기도 고양시 동양인재개발원에서 능력평가대회 결과보고회와 한우회원농가교육을 실시했다.

조병대 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대회 행사가 거듭될수록 출전우의 성적이 향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며 “한우의 고급화를 선도해온 대회라는 점에서 자부심을 갖고 있으며, 앞으로도 한우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대회가 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날 교육에는 전국의 한우농가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농식품부의 한우정책방향, 일본 고베팜 이시다 농장

장의 일본 화우의 개량 및 사양관리 방법 소개 등 한우 고급육 농가들에게 유익한 내용의 강의가 이어졌다.

특히, 이시다 농장장이 소개한 일본 화우의 철저히 계산된 가축개량 노력과 마치 가족의 일원처럼 밀착된 관리방법은 국내 한우농가들에게 큰 도움이 됐다.

이날 교육 이후에는 차기 13회 대회 개최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이날 협의된 차기 한우능력평가대회 개최방안에 따르면 올해 신종플루로 전격 취소된 한우경진대회가 격년제로 내년부터 개최될 계획인 가운데 한우능력평가대회와 한우경진대회 연계 추진으로 해마다 개최됐던 대회는 경진대회와 함께 격년제로 개최한다.

또 육질 및 육량 우수상 입상자의 선정기준을 상위 20위 이내 농가로 제한해, 대회 위상과 출품 입상축들의 품질을 한층 격상시킨다는 방침이다.

특히 입식 조사한 5두 가운데 2두를 출품해 2두의 성적을 합산, 평가는 기존의 평가기준을 개선해 농장평가와 출품우 개체를 각각 심사해 종합우승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대폭 개선하는 등 평가부문을 보다 다양화, 객관화해 나가기로 했다.

## GM대우 창원공장, 포스코와 함께한 한우사랑

한우자조금 ‘한우사랑 실천 기업공동 캠페인’ 전개



어려운 한우 농가에게 힘이 되고, 한우 소비 활성화 지원과 한우 산업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한우자조금과 기업들이 땀 흘렸다.

한우자조금과 전국한우협회는 공동으로 15일 경남 창원에는 있는 GM대우 창원공장



구내식당에서 진행하는 이번 캠페인은 한우 소비를 활성화하고 관심을 유도해 한우에 대한 신뢰와 안전성을 홍보하는 한편, 실소비자인 기업은 생산자 단체인 한우자조금을 통해 한우를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서로 윈윈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GM대우 직원들과 함께한 ‘한우사랑 실천 기업공동 캠페인’에서는 직원 3,500명

을 대상으로 하는 한우 등심 무료시식회가 진행됐으며, 당일 중식으로 한우불고기를 제공했다. 또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우 예약판매 행사도 진행했다.

이날 한우자조금은 ‘한우사랑 실천 기업공동 캠페인’ 진행을 기념해, 전국한우협회 정호영 경남도지회장이 황우성 GM대우 창원사업본부장에게 감사의 의미로 최고급 한우세트를 전달하는 전달식도 가졌다.

남호경 한우자조금위원장은 “기업공동 캠페인을 통해 한우 소비 촉진과 한우에 대한 관심을 유도함과 동시에 올 한해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열심히 일한 직원들이 한우와 함께 따뜻한 연말연시를 보내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행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 ‘한우의 우수성’ 온몸으로 체감한 계기

경희대 · 한국외대 · 공주대학생들 경북 상주서 ‘한우농가체험’ 실시



한우자조금은 대학생과 함께하는 ‘한우농가 체험’ 행사를 진행해 우리의 한우를 알리고 몸으로 느끼는 기회를 마련했다.

지난 4~5일, 경희대 국제경영대학 연합동아리 PRO-SEED, 한국외대 중국어과 50명 내외의 학생들과 함께 경북 상주에서 한우농가 체험을 실시해 명실상감한우 홍보타운에서 교육을 하고 현장체험 및 세미나를 진행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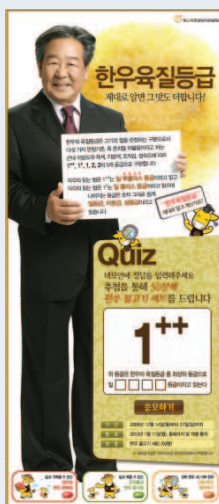
세미나 발표 주제로 경희대는 한우산업발전방향 프리젠테이션(한식세계화에 맞춘 한우세계화 방안, 비선호 부위 판매촉진방안, 한우의 브랜드화, 쇠고기이력추적제

및 한우유통의 신뢰성 회복 등)을 발표하고 한국외대는 한우의 대 중국 홍보방안(한우의 세계적 경쟁력, 중국의 온라인 시장 및 쇠고기 시장 분석, 한우의 중국 공략법, 대 중국 온라인 홍보 실행계획)에 논의했다.

또한 17~18일에는 공주대 학생들과 함께 충북 충주에서 한우체험행사를 실시, 충주한우협회와 연계하여 한우교육 및 한우농가를 체험해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 ‘한우 114’ 클릭하면 행운이 팡팡!!

온라인 홍보 이벤트 실시... 포인트 적립으로 한우선물세트 증정  
숨은 한우 아이콘 찾으면 경품도



한우자조금은 한우114 컨텐츠 구축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다.

14일~27일까지 진행되는 이벤트 사업으로 포인트 적립과 ‘미션! 숨은 한우고기를 찾아라’를 진행한다. 포인트적립은 방문 및 이벤트참여, 게시물 등록 등 활동이 활발한 누리꾼에게 지속적으로 포인트를 지급함으로써 최다포인트를 적립한 누리꾼에게 한우 선물세트를 증정한다.

‘미션! 숨은 한우고기를 찾아라’는 한우 114 내 랜덤으로 노출되는 한우고기 아이콘을 찾는 과정에서 정보와 재미를 제공, 사이트 내 메뉴별 컨텐츠 페이지를 열람하도록 유도한다. 이벤트 페이지 내에 숨은위치 힌트 보기를 참고해 사골, 갈비, 안심, 등심, 앞다리 등의 부위별 아이콘 5개를 찾아서 클릭하면 응모되는 형태로, 이를 추첨해 한우선물세트, 아이팟, 영화예매권 등을 증정한다. 향후 새해를 맞이하여 시즌이슈 이벤트사업으로 누리꾼의 새해다짐 및 사연 중 추천댓글이 많이 달린 게시물을 대상으로 당첨자를 선정하여 각종 선물을 증정한다.

또한 한우농가를 대상으로 한우농가 기술교육 컨텐츠를 12월말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기술교육운영(전문교육기관, 한우사업단, 한우농가), 전국의 지역별 교육 전문기관 현황, 각 기관별 교육 프로그램 및 일정 안내, 교육 프로그램 별 신청자 현황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창작동화 공모전 당선작품을 온라인 상에서 소비자가 즐길 수 있도록 1월~2월까지 2개월간 ‘한우창작동화’를 방영한다. 1월 대상작인 ‘누렁이는 할아버지 의사 선생님’을 시작으로 총 9편의 창작동화 플래시를 업데이트 할 예정이다.



## 지역별 자조금 대의원 간담회

### 강 원



강원 자조금 대의원 협의회가 지난 14일 홍천군 농업 기술센터에서 대의원 및 시군지부장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졌다. 2009년도 한우자조금 사업에 대한 업무 결산 보고 후 시군소비홍보 횡수 증가에 대하여 의견을 모았다.

### 경 북



대구·경북 한우자조금 대의원 협의회가 지난 17일 한우협회 경북도지회 2층에서 개최했다. 총 72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조금 거출현황이 보고되어 경신산업 100% 거출을 위한 대의원 및 시·군 지부장의 역할을 논의하고, 대의원 기능 활성화 강화를 위한 추진계획 및 지침을 보고했다. 자조금 총회 시 대의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의결하고 소비홍보 및 교육사업을 도별로 확대 편성을 요청하였으며, 2010년도 한우능력 평가대회에 모든 농가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마련을 요구했다.

### 전 남



광주·전남 한우자조금 대의원 협의회가 총 39명의 대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7일 장흥군민회관 2층 소회의실에서 진행됐다. 2010년 한우자조금 예산안과 한우자조금 성과보고를 안건으로 한우자조금 사업을 시·군 소비홍보, 현장실습교육 등이 농가에 실질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할 것을 심의했다. 또한 광주·전남지역 자조금 미거출 및 임의사용도축장(삼호축산, 삼국산업사, 대원축산)을 자조금 대의원 과 지도자가 직접 도축장을 찾아가 거출하도록 했다.

### 충 북



충북 자조금 대의원 협의회가 지난 7일 진천 TMR사료공장에서 열렸다. 2009년도 한우자조금사업현황 및 실적, 유통감시단 운영 등을 토대로 납부율이 저조한 도축장에 공고 및 해당지역 자조금 대의원, 협회 지부장이 도축장을 방문해 납부를 독려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2010년도 충북 축산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도드람 축산물 공판장의 운영 설명회를 가졌다.

## 2010년은 능동적 대처를 위한 한우산업 발전의 해

2009년 4차 한우자조금 관리위원회가 지난 16일 대전 흥인호텔에서 개최됐다. 총원 28명 중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관리위원회는 2009년 자조금 거출현황 및 추진현황을 원안접수하고 2010년 사업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 ◎2009년 한우자조금 조성 및 운용 실적

2009년 10월 기준으로 자조금은 97.9%가 거출되어 08년 이월금 합산 총 268억53,106천원이 조성되어 171억36,267천원이 집행됐다

2009년 추진실적으로는 TV·라디오홍보, 한우농가 교육, 온·오프라인 소비홍보 및 기업체 연계 소비행사, 한우 나눔행사 등 다양한 사업이 전개됐다.

TV·라디오 광고는 '천상천하 한우독존' 편이 6월 1일~11월말까지 방송됐으며 다양한 PPL이 전개됐다. 와이드칼라 18기와 스크린도어 8기에서 지하철광고를 1월~6월까지 진행했다.

대학생 한우체험행사 및 소방공무원 한우전달식 등 온·오프라인 소비홍보 및 PR대행사의 소비홍보행사를 개최했으며 한우 나눔 행사를 펼쳐 어려운 이들에게 함께 한우를 전달했다. 총 47명의 한우농가가 일본에 해외연수를 다녀와 축산기술을 체험했으며 총 45회에 걸친 한우농가교육을 전개했다.

이번달 사업계획으로는 산타축제, 한우쿠킹콘서트, 온라인 광고 및 홈페이지 콘텐츠 구축 등과 12월 "우리 한우와 함께 따뜻한 정을! 한우 나눔 행사"가 기획됐다.

### ◎2009년도 사업계획 변경

2009년 향후 자조금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해, 한우 사육두수 증가에도 소값이 회복되었으나 한우가격에 따른 소비자의 부정적 인식의 발생을 우려하고 신중인





플루엔자의 확산에 따른 대규모 행사가 어려움에 따라 직접적 소비촉진 행사는 지양하고 TV매체를 통한 사회 공헌적 이미지와 저지방부위 등에 대한 소비홍보로 한우 소비기반 및 저변 구축으로 방향을 조정했다.

이로써 TV 및 라디오광고는 11월에 종료할 계획이었으나 2010년 2월 까지 지속할 예정으로 변경한다. 또한 현혈자가 감소됨에 따른 현혈활성화를 위해 적십자사와 연계해 현혈 이벤트를 전개할 예정으로, 현혈자를 대상으로 정육팩에 대한 기부를 유도해 제3의 단체에 기부하는 한우소비 대잔치를 벌릴 계획 중이다.

### ● 2010년도 한우자조금 사업계획

2010년도 한우자조금 예산은 농가 거출금 124억8000만원(10년 예상도축두수 65만두×평균거출율)과 정부 지원금 90억원, 신종플루에 따른 사업계획 취소 및 예비비 등의 2009년 이월금 97억원 등 총 311억8000만원이다.

현재 사육두수 증가로 인한 가격하락과 소비성향 둔화로 인한 한우농가의 불안감 고조 및 환율 하락에 따

른 미국산 쇠고기 시장 점유율 확대가 예상되므로 2010년은 개방화 시대의 외부환경 능동 대처를 위한 홍보활동 강화 및 안정적



인 사육환경 조성으로 한우산업을 보호하고 소비자 인식 전환을 유도하여 소비활성화를 기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 확대로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추진방향을 설정했다.

직거래 장터 확대 등 판매처를 다양하게 하고 대형 유통업체와 연계한 공동마케팅을 통해 판매 확대를 유도한다. 미국산 수입확대에 대응한 차별화된 홍보로 한우소비를 진작시키게 한다.

쇠고기이력시스템의 적극 홍보로 소비자 인식 전환을 유도하며 저지방 부위의 연구개발 확충을 통해 비선호 부위의 소비활성화를 유도하며 청소년층 입맛에 맞는 요리개발로 미래 잠재고객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안정적인 사육환경 조성을 위해 한우농가의 지속적인 계도를 통한 홍수출하 및 조기출하를 방지할 계획이다.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을 확대하고 소규모 농가의 자질 향상을 위해 전문교육 등 다양한 교육이 진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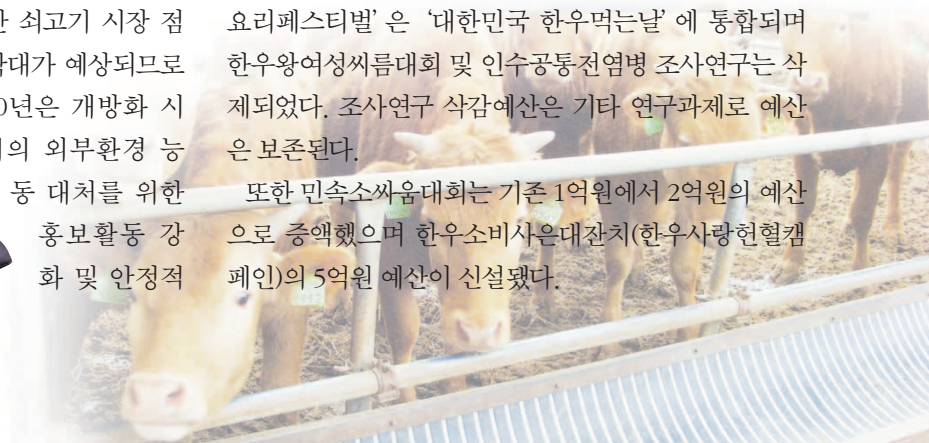
관리위원회가 의결한 2010년 한우자조금 사업계획에 따르면 TV·라디오 홍보 사업부문이 96억3418만원, 유통구조개선사업부문이 34억3821만원, 교육 및 정보제공 사업 부문이 80억4598만원, 조사연구사업부문이 13억400만원 등이다.

또 소값 하락에 대비한 예비비 성격의 수급안정기금으로 50억원을 적립키로 했다.

### ● 의결사항

2010년도 자조금 사업계획 및 예산안 중 '한우세계화 요리페스티벌'은 '대한민국 한우먹는날'에 통합되며 한우왕여성씨름대회 및 인수공통전염병 조사연구는 삭제되었다. 조사연구 삭감예산은 기타 연구과제로 예산은 보존된다.

또한 민속소싸움대회는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의 예산으로 증액했으며 한우소비사은대잔치(한우사랑현혈캠페인)의 5억원 예산이 신설됐다.



## 청소년 한우 맛체험

대구(다사교) | 11월 26일



대전(상지초교) | 12월 1일



고양(벽제초교) | 12월 3일



서울(광문고) | 12월 10일



충주(덕벌초교) | 12월 10일



목포(용해초교) | 12월 15일



## 현장실습교육

전 북 | 11월 19일



삼 척 | 11월 30일



## 생산성향상교육

고 양 | 11월 4일



홍 성 | 12월 10일



## 경영관리교육

전 북 | 11월 20일



신 안 | 11월 19일





## 한우자조금 애독자 코너

한우 자조금은 이 지침서를 만들고자 지난 8월, 한국동물자원과학회 한우연구회와 계약을 하고 연구지원을 해 마침내 지난 17일 이 지침서가 발간되었습니다. 37명의 전문가와 교수가 참여해 한우를 사육하는데 필요한 사양 및 경영관리에 대한 지침서로써 한우의 영양 및 대사, 질병관리 등 한우양육농가의 필요한 모든 정보를 수록했습니다. 이 지침서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 전국한우협회 홈페이지  
www.ihanwoo.org

●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홈페이지  
www.hanwooboard.or.kr

### ★11월호 정답자분들! 축하드립니다

김미연 (전북 장수군), 이순구 (경상북도 의성군), 이재용 (경북 의성군), 안영식 (충북 제천시), 김석도 (경남 합천군)

### 전국 한우像 순례⑨



중앙고속도로 상행선 청도휴게소에 설치되어 있는, 한우 소싸움을 형상화한 “격돌”이란 제목의 정길택 작가 작품이다. 실제의 소싸움을 보는 듯한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대결자세를 취하고 있는 한우의 살아 있는 근육 모양새와 얼굴의 표정을 정밀하게 표현하고 있다. 천년의 역사를 이어 내려온 우리 “소싸움”을 이 지역 대표적인 민속행사로, 여기에 더하여 한국농경문화를 대표하는 문화축제로 승화시켜온 청도의 상징적 내용을 이곳을 들르는 여행객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

### 한우와 음식궁합⑤

한우 + 고구마 = Bad



음식을 먹을 때는 되도록 같은 성질의 음식을 함께 먹는 것이 좋다. 그렇기에 따뜻한 성질의 한우와 차가운 성질의 고구마는 함께하면 이롭지 않다. 더욱이 두 음식은 소화에 필요한 위산의 농도가 달라 위의 작용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음식물이 위에 체류하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어 위에 부담을 줌과 동시에 소화와 흡수에 해를 준다. 고구마보다 단백질 함량이 낮은 감자를 준비해 한우와의 영양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좋다.



한우자조금  
www.한우자조금.kr  
www.hanwooboard.or.kr

비매품 / 제5권 제2호 통권 제50호 / 발행 2009년 12월 25일 / 발행인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28-60 케피아회관 3층 TEL. (02)522-4292~3 FAX. (02)522-3605 / 발행처 전국한우협회/서울시 서초구 서초1동 1621-19 제2축산회관 2층 TEL. (02)525-1053 FAX. (02)525-1054 / 편집·인쇄 탐미더

❶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❷ 본지에 실린 기사와 사진, 그림 등은 무단으로 복제·전재할 수 없습니다.

# 한우를 민족산업으로 뿌리내려 가겠습니다.

- 한우는 우리 민족 정서에 배어있는 민족문화 유산입니다.
- 단순한 고기산업에서 한민족의 문화산업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 국가·지방 행사에 참여하여 문화로 뿌리 내리겠습니다.
- 한우농가 뿐만 아니라 국민(소비자)들이 키워가는 산업으로 정착시키겠습니다.
- 항상 국민들과 함께 한다는 생각으로 한우산업을 이끌어 갑시다.

한우를 키우는것은  
민족혼을 키우는것입니다